

손흥민, 태극기 두르고 첫 우승컵 ‘번쩍’



손흥민의 토트넘 주요 기록

2016-2017시즌 프리미어리그(EPL)	준우승
2018-20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우승
2020-2021시즌 리그컵	준우승
2024-2025시즌 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

토트넘 41년만의 우승, 손흥민 생애 첫 우승

손흥민
토트넘 홋스퍼(2015년~)

토트넘, 맨유 꺾고 유로파 우승
후반 22분 교체 투입 20여분간 활약
한국인 선수로 네 번째 정상 등극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이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토트넘도 17년 동안 이어진 무관의 한을 풀고 유로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토트넘은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에서 열린 2024-2025 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로 앞서간 토트넘은 남은 시간 맨유의 거센 공격을 버텨내며 승리를 지켜냈다. 손흥민은 후반 22분 교체 투입돼 20여분간 활약하며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손흥민은 2009년 유럽 진출 이후 15시즌 만에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토트넘 주장으로 나선 그는 경기 종료 후 태극기를 어깨에 두른 채 눈물을 흘렸고, 우승 세리머니에서는 가장 먼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독일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손흥민은 그동안 우승과는 좀처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처음 몸담은 함부르크(독일)는 분데스리가 중하위권 클럽이어서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3~2014시즌부터 두 시즌을 뛴 레버쿠젠(독일)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독주로 거듭 4위에 그쳤고, 컵 대회에서도 우승권에 다가서지 못했다.

손흥민은 2015~2016시즌 런던 연고의 박클럽인 토트넘에 입단했으나 우승의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우승 문턱에서 세 번 주저앉았다. 토트

넘 입단 후 두 번째 시즌인 2016~2017시즌에 프리미어리그(EPL)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8~2019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치른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선 0-2 패배로 우승컵을 놓쳤다. 2020-2021시즌 리그컵 결승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 0-1로 졌다.

손흥민은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20여분 간 수비에 집중하며 승리에 기여, 결국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토트넘은 2007-2008시즌 리그컵 이후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유럽대항전에서는 1983-1984시즌 UEFA컵 우승 이후 무려 41년 만이다. 이번 우승으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 직행 티켓도 확보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17위, 16위로 고전하던 두 팀의 맞대결은 결승전이라는 무대에서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총 4만9000여 명의 관중이 몰린 가운데, 존슨의 선제골은 맨유 수비수 루크 쇼의 몸을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향했다. 자책골 가능성도 있었지만 UEFA는 존슨의 득점으로 공식 기록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8강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결장한 이후 이날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 교체로 나섰다. 공격보다는 수비 가담에 집중하며 맨유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힘을 보탤었다. 추가시간 8분을 포함한 맨유의 파상공세를 토트넘은 끝까지 버텨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이번 우승으로 차범근 전 감독(프랑크푸르트·1980, 1988), 김동진, 이호(제니트·2008)에 이어 UEFA컵/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네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최동환 기자 cdstone@nailbo.com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이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에서 열린 2024-2025 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한 뒤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광주FC, 강원 상대로 설욕 노린다... 선두권 추격 시동

25일 광주월드컵서 15라운드



광주FC가 홈에서 강원 FC를 상대로 설욕전과 함께 리그 선두권 추격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는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4월 13일 강원 원정에서 불의의 패배를 당했던 광주는 설욕과 함께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노린다.

앞서 광주는 강원과의 8라운드 경기에서 특유의 점유율 축구를 펼쳤지만, 전반 16분 최병찬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끝내 동점 골을 넣지 못해 시즌 두 번째 패배

를 기록했다. 당시 패배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팀 분위기에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광주는 최근 14라운드에서 포항스틸러스를 1-0 승리를 거두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포항 역시 올 시즌 광주에 첫 패배를 안긴 팀이었기에, 이번 강원전은 '2연속 설욕전'으로 주목된다.

광주는 현재 리그 5위(6승 4무 4패·승점 22)에 올라 있으며, 상위 4개 팀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아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크다.

광주 선수단은 강원전과 다음달 1일 예정된 울산HD전까지 이어지는 5월 남은 2경기를 시즌 향방을 가를 변곡점으로 보고 이번 강원전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강점은 최근 물 오른 수비 안정성이다. 대전과의 6라운드 이후 9경기 중 8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직전 3경기 모두 1점 차 접전에서 수비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번 강원전에서도 승패의 분수령은 선제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는 올 시즌 선제골을 넣고 패한 경기가 단 1차례뿐으로, 초반 득점 여부가 핵심 변수다. 공격진 아사니, 오후성, 가브리엘 등이 선제골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FC 관계자는 "포항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 강원을 상대로 설욕전을 완수하고, 선두권 추격에 힘을 실을 계획"이라며 "팬들과 함께하는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광주FC, FIFA 징계 논란에 공식 사과... "책임 통감"

연대기여금 납부 완료
"재발 않도록 재정비"

광주FC가 아사니 선수의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안을 약속했다.

22일 광주FC는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아사니 선수 연대기여금 미납과 FIFA 징계 미인지와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팬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광주FC에 따르면 피파 클리어링하우스가 고지한 연대기여금은 3회에 걸쳐 지정된 계좌로 납부를 시도했으나 입금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원인은 금융기관과 함

께 파악 중이다.

광주는 클리어링하우스가 구단 담당자 이메일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독촉 및 징계결정문을 전달했으나, 담당 직원의 휴직으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구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클리어링하우스와 소통해 연대기여금을 납부했고 지난 21일 납부 완료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분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현기 기자